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대중문화적 의의

- 신소설과 신연극의 상호참조를 통한 여성의 멜로드라마적 형상화 -

김기란*

「차례」

1.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문화적 맥락
2. 풍속개량론의 함의와 여성을 매개로 한 문화적 상제감각의 추동
3. 신문연재 신소설과 신연극의 매체적 교환과 여성대중의 구성
4. 여성을 매개로 한 멜로드라마적 요소의 사회문화적 의미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07년 후반 『제국신문』의 재배치된 지면을 실증 자료로 삼아, 신문연재 신소설이 신파극의 원재료로 활용될 수 있었던 예비적 상황, 즉 그 동인과 원인에 주목했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경험이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매개로, 예술 장르의 허구적 자아를 구성하는 경험으로 전유되는 동시에 신문연재소설과 신연극으로 전이되어 1910년대 신파극의 시대를 예비함을 살펴보려 했다. 『제국신문』을 매개로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사회문화적 상징적 코드로 기능했던 정황을 통해 지금은 그 대상을 확정할 수 없는 신파극을 추동했던 사회문화적 요소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신소설을 곧 신파극으로 단정하는 관행적 도식은 위험하지만, 신문연재 신소설과 신파극이 여성감각에 호소하는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매개로 호환되는 사회적 개연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본 논문은 1910년

* 홍익대 국어교육과 겸임교수

변안 신파극 이전 그것을 예비했던 연극사적 상황을 고찰함과 동시에 멜로드라마라는 사회적 상징 코드가 당대 “부인사회”의 분화를 반영했다는 사회적 의미론을 분석해 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당대 다른 매체와 구분되는 『제국신문』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었다. 『제국신문』은 ‘암신문’에서 나아가, 당대 대중문화를 구성한 매체로서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곧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신문기사와 신문연재 신소설, 신연극과 신파극은 상호참조의 관계 속에 1910년대 대중예술의 구심점이자 당대의 대중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핵심어: 『제국신문』, 풍속개량론, 멜로드라마적 요소, 여성대중, 신소설, 신파극

1.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문화적 맥락

기존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는 ‘신여성과 자유연애’로 표상되는 새로운 근대적 여성상을 발견하는데 전력해왔다. 하지만 “현처양모, 여학생, 신여성, 연애”의 기원을 고찰하는 연구들은 그 출발에서부터 ‘구여성-신여성’의 구도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당시 자료 속에 현상된 수집물들을 통해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하는 현상학적 소재주의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복순이 제기한 질문, 곧 “『제국신문』이 말하는 부녀자가 동일한 것인가”¹⁾이라는 질문은 생산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1907년 5월 17일 이후의 『제국신문』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타진하는데서 시작된다.

1907년 5월 17일 『제국신문』²⁾은 지면을 재배치하여 새롭게 출발한다.

1) 김복순, 『『제국신문』의 힘: 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학사연구』, 2013.

2) 지금까지의 『제국신문』 연구는 1907년 5월 17일 이후의 지면이 발굴, 공개되지 못해 『제국신문』이 주도한 당대의 문화적 변화를 고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07년 5월 14일 지면확장을 위해 휴간한다는 광고 후 15일과 16일 휴간한 『제국신문』은 5월 17일 지면판형을 4단에서 6단으로 확장하여 발행된다. 발행인은 남궁준이고 편집인은 이종일이었지만, 이후 6월 7일자 광고를 통해 정운복과 이인직, 이해조, 박정동이 편집인으로 보강되었다는 소식³⁾을 전한다. 새로 재배치된 지면은 1면의 논설이 2면으로 이동했고, 1면에는 청국이나 일본, 서양의 지식을 소개하는 잡보와 외보가 전진 배치되었으며 소설란이 새로 자리잡아 이인직의 『혈의루』 하편 1회 연재가 시작된다. 2면과 3면, 4면에는 황실 소식과 여항의 소식으로 구분된 잡보가 배치되었다.

재배치된 지면을 통해 1907년 5월 17일 이후의 『제국신문』은 신문기사, 신소설, 신연극이 사실과 허구, 서사와 극이라는 내용과 형식을 횡단하며 교환되는 문화적 상황을 드러낸다. 그것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여성의 감각⁴⁾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사회적 실천력을 추동하려 한 『제국신문』의 전략을 매개로 가능했다. 1898년 창간부터 1907년 9월 일시 폐간까지 『제국신문』의 대중지향성이 일반 대중으로서의 여성을 탐색했다면, 1907년 10월 정운복 체제로 정비된 재간행 이후에는 미시적이고 상세하게 분화된 일상적 습속⁵⁾의 다양한 여성층을 문화적 기획을 통해 반영하려 했다. 곧 1907년 전반기까지 『제국신문』에 반영되었던 여성이 계

최근 공개된 1907년 5월 이후 『제국신문』을 통해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새로 발굴된 『제국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 3) 1907년 5월 17일자부터 6단으로 지면을 확충한 『제국신문』은 6월 7일자로 편집진을 보강하는 사고(社告)를 낸다. “본사 편집원은 정운복씨로 추천되야 금일부터 일반 편집사무를 담당사무호으며 물리학과 소설은 박정동, 리인직, 이해조 삼씨가 담당 더솔허난대 이상제씨는 본 신문이 우리 한국 개명기관에 요점됨을 생각허야 보슈의 다소를 구의치 안코 다 즈원 근무호오니 일반동포는 조량호시기 바라오”
- 4) 김복순, 『『제국신문』의 함: ‘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화사연구』, 2013.
- 5) ‘Byt’의 역어로 다양한 의미로 번역, 사용되고 있다. 영미권의 페터 스테이너는 ‘every life’로 번역하였다. 국내 학자들의 경우 ‘사회생활’(김치수), ‘풍속’(박거용), ‘습속’(홍지웅)으로 번역하고 있다.(김주현, 『개화기 토론체 양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9.에서 재인용).

몽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구여성과 계몽을 자각하는 신여성으로 구조화 되었다면, 1907년 후반 이후 『제국신문』에 등장하는 여성층은 논설과 기사, 별보, 잡보라는 지면의 배치 속에 지식형 여성 선각자에서부터 하층 여성의 경험까지 여성 내부의 구별되는 ‘차이’를 통해 그 각각의 구체적 양상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문화적 기획을 통해 사회적으로 개연화되는데, 곧 『제국신문』에 등장하는 여성 관련 기사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소설로 개연화되는 과정⁶⁾을 거쳐, 신문연재 신소설과 (신)연극의 호환가능성을 통해 당대 새로운 문화로 등장한 연극장의 재료로 제공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제국신문』의 지면에 등장한 중첩된 타자들의 “부인사회”가 『제국신문』를 매개로 당대의 새로운 대중예술형식과 연동되어 개연화 되는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국신문』에 나타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경험은 여성이 주체이자 객체인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매개로 예술(문학) 장르의 허구적 자아를 구성하는 경험으로 전유되는 동시에 새로운 대중문화로 떠오른 신문연재소설과 신연극으로 전이되어 1910년대 신과극의 시대를 예비하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즉 『제국신문』의 기사는 소수의 구학문적 혹은 신학문적 지성을 겸비한 여성 선각자가 아닌, 중첩된 타자성⁷⁾을 지닌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신문연재 신소설로 개연화되고, 그것들을 개연적 현실로 소비했던 다수의 여성독자들이 사회적 세력의 한 양태인 문화소비 세력으로 부상했으며, 이에 힘입어 1910년대 (신)연극과 신과극은 여성의 감각이 반영된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전경화하며 여성들을 문화대중으로 호명했다.

본 논문은 새로 공개된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지면을 분석하여, 그것이 신문연재 신소설과 신연극의 멜로드라마적 요소로 상호참조되며

6) 김기란,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여성문학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 김복순, 앞의 논문, 365쪽.

여성의 감각을 사회적으로 개연화하는 양상을 고찰하려 한다. 곧 신소설과 신연극이 『제국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개연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을 대중문화의 객체이자 주체로 호명하는 양상을 살펴, 국민이 아닌 “부인사회”라는 구체적 사회 범주⁸⁾가 분화됨을 확인하려 한다. 김복순이 지적한 것처럼 “남자가 아닌 여성, 유지부인이 아닌 일반부인, 여성 중에서도 천첩, 어린이 중에서도 고아 등이 지닌 타자성이야말로 『제국신문』이 힘써 보듬고자 했던 대상”⁹⁾이었고, 그것은 여성 감각의 경험을 통해 주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했다. 경험은 주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1907년 이후 그러한 경험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매개한 것이 『제국신문』이었다. 곧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신문기사와 신문연재 신소설, 신연극과 신파극은 상호참조의 관계 속에 1910년대 대중예술을 구성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는데, 이것이 당대 다른 매체와 구분되는 『제국신문』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암신문’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제국신문』 평가는 수정되어야 한다. 새로 발굴된 자료를 통해 본 『제국신문』은 당대 대중문화를 구성한 매체로서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2. 풍속개량론의 함의와 여성을 매개로 한 문화적 상제감각의 추동

근대계몽기 지식형 여성들은 계몽을 역설하고 교육의 힘을 강변하지만, 그것은 남성의 영역을 전유하는 양상에 가까웠다. 일례로 『제국신문』에 연재되었던 『가정학』의 내용은 당대 남성의 감각이나 관점이 투영된 여성의 이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논자인 한남여사나 이일정 등은 『제국신문』을 통해 여성의 역할과 자각을 촉구했

8) 근대계몽기의 ‘사회’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는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을 참조할 것.

9) 김복순, 앞의 논문, 369쪽.

지만, 그러한 인식과 실천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어떤 실천적 효과를 발했는지는 알 수 없다.

가령 1907년 5월 21일 자 잡보 『부인사회개○』를 보자. “종로 상업회의소 아리층에 상품진련관을 설치하고 뇌외국 진귀한 물품을 벌리고 일반인스의 미매와 구경을 허허는듯 그 물품 기호부를 본국부인으로 한 십오인 가량 빙용흔든 말은 전일에 괴지호얏거니와 그 간호부인 십여명이 고빙되얏는듯 복식은 남자의 격오리에 치마입고 머리는 서양부인의 머리 갖치 쪽지고 머리에 아모 것도 쓰지 안고 우산만 들고 단이며 월급은 신화 칠환식이오 그 진련○ 구경을 요구하는 자는 문표 혼 장에 신화 열 전식에 사가지고야 들어가 구경하게 호얏고 그 간호부인은 사회에 유명한 슝름들의 부인이니 리승만씨 부인 송장로 부인 기타 점잔은 리들이더라”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이 뒤섞인 복색으로 월급을 받으며 사회 활동에 열심인 여성들은 유명한 사회적 명사들의 부인이다. 신문기사는 이들의 사회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신화 10전을 내야만 한다고 전한다. 여성의 사회 조직과 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일부 특수층이었고 그들이 남성 영역을 전유하며 이상화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신문기사이다. 이런 문제점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최초의 신소설 『혈의루』 상편에 그대로 반영되어 구조화되어 있다. 『혈의루』의 문제적 지점은 신여성 옥련이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모두 표상한다는 것이다. 옥련이란 인물은 신문기사로부터 당대의 사실적 내용을 취함으로써 개연성이 보강¹⁰⁾되었지만, 그럼에도 당대 이상적 남성성을 전유한 (신)여성의 형상을 지닌 옥련은 여전히 구시대의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인물이다. 하여 신여성 옥련의 활약이 중심을 이루었을 『혈의루』 하편은 당시에는 끝내 완성될 수 없었다.

1907년 대한제국 정부는 부족한 재원과 왜소한 정치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교육, 과부의 개가, 혼인 악습 철폐, 기생신분 폐지 등 여성을 위한

10) 김기란,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여성문학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새로운 정책을 공표하고 실시하려 했다. 말하자면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당시 이미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근대계몽기 언급되었던 근대적 계몽의 언표들을 곧 경험이나 실천으로 치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의 영역인 정치보다 일상의 풍속이 시급함을 논한 『제국신문』의 일련의 논설들은 주목을 요한다. 탄해생 정운복은 1907년 9월 19일자 논설『법규와 풍속의 관계』, 10월 9일자 논설『정치 기량보다 풍속기량이 급함』을 통해 일상 풍속의 개량을 요구한다.

...근일 우리나라의 뜻 있는 선비는 항상 정치 기량을 말하고 꾀하니 이는 **근본을 버리고 쫓을 취함이로다** 정부에서 빅 가지 아름다운 법도와 천 가지 도훈 규측을 마련하였슬지라도 그 인민의 **풍속이 괴악하여 실상으로 힘하지 안이 하면** 필경은 지상공문이 될 뿐이라 근일에 우리가 목도한 바로 말 할지라도 우리 정부에서 대황테폐하의 조칙을 받드러 죠훈을 금하는 령을 반포하였스니 그 법이 가장 도교 아름답것마는 일반 인민은 고사하고 대관 중에도 범법한 자가 잇스니 이는 인민이나 대관의 죄가 안이오 곳 **풍속의 죄라** 홀지오 부인이 문 밖계 나갈 썩에 교군을 타거나 장옷을 쓰는 것이 심히 괴로울 썩 안이오 돈이 만히 드는 고로 사름마다 혼탄하며 외국 사름의 죠소하는 바인 줄을 알 것마는 일쥌일석에 버리지 못함은 풍속을 버서나지 못함이니 **몬져 풍속을 기량치 안으면 정치의 기량이 실시되기 어려움은 분명하도록도...**

정운복의 논설은 일상의 풍속개량을 정치개량보다 우선 개량되어야 할 근본적 요소로 제안한다. 의복이나 혼인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활동영역인 일상에서의 구체적 실천을 제안하고 있는바, 그것을 통해 여성 일반은 의무와 동시에 책임을 부여받으며 “되(어야 하)는 주체”에서 “하는 주체”¹¹⁾로 호명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계몽의 객체가 아닌, 계몽

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일부 지식형 여성 선각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여성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장(場)에서 주체로 구성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물론 풍속개량론은 1907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1902년 “희대” 혹은 “소청대”로 회자되던 실내 공연장 협률사가 한성에 생긴 이후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연극장이 인기를 끌게 되자, 1903년부터 협률사의 폐해를 지적하는 글들이 풍속개량론의 맥락 속에 등장했다. 그 내용은 협률사를 “대한국 중에 일대 淫逸風流之場”으로 규정하며 협률사 관람 중 이루어지는 음란한 풍속을 경계한 것으로, 일견 연극장 개량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당시 『제국신문』의 논설에서도 언급되었던 풍속개량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¹²⁾

그런데 1907년 이후 여타 다른 매체에서는 여전히 연극장을 공연예술 공간의 순기능을 지니지 못한, 음란한 풍속과 소문의 진원지로 야만적 풍속의 전염 장소로 이해¹³⁾하는 반면, 『제국신문』은 연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연극개량을 통한 풍속개량론을 전개한다. 즉 1903-4년의 협률사를 둘러싼 풍속개량론이 연극장의 음란한 풍속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러한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협률사를 모태로 한 실내 연극장이 속속 개장되며 본격적인 연극장 시대가 시작된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은 연극장의 순기능을 전제로 연극장 내 연극의 개량을 통

11) 김복순, 앞의 논문, 369쪽.

12) 김기란, 「신연극 <은세계>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210-211쪽.

13) “국 대신들이 연희장에 追遂하는 事는 累累 보도호는 바어니와 중구원 고간 리지 용 씨가 일작에 기생 산홍을 대동호고 흥릉동〇에 신설한 연희장에 종일 질탕호얏고 同夜에는 협률사에서 遊樂호얏다더라”(『携妓蕩遊』, 『大韓每日申報』, 1908년 5월 1일.)와 “苑洞居 閔楚山에 別室楚山집이 協律社를 玩賞호나 稱호고 每夜에 幾時間式 往來호다가 唱夫 一名을 和奸호고 楚山집이 幾千金을 反酬호는지라 諸唱夫가 稱之以鳳子鳳이라 호고 相欲通奸호다가 一場 風波가 起호얀는디 北村 某某家 別室의게 傳染病이 必生 홀이라더라”(『雜報-風求鳳曲』, 『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8일.)

한 풍속개량론을 주장¹⁴⁾한다. 1908년 5월 14일과 5월 15일 연속 게재된 논설 「소설(小說)과 풍속의 관계」나 1907년 8월 10일 논설 「단성사(團成社)를 평론함」, 1908년 10월 29일자 논설 「연극장을 급히 기량할 일」은 당대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신소설과 연극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다.

①...대더 연극(演劇)이라 하는 것은 업는 나라이 업스되 우리나라에는 다만 광디가 잇서서 넷적 쇼설을 가지고 라랑하며 춤추는디 지나지 못허더 니...월전부터 한일 량국 사름이 합동허야 단성사라 하는 것을 설시허였다 허기로 슈일 전에 그 연희하는 실디를 잠간 본즉 춤 기탄홀 바이 만흔지 라...무릇 풍류와 춤과 연극은 나라의 하로도 업지 못홀 물건이라 엇지허야 그러뇨 하면 사름의 마음은 심히 약허야 근심과 걱정은 항상 만코 질거움과 깃븐은 항상 적은 즉 무엇으로써 위로호고 쇼창허리오 이럼으로 성인이 나라들 다스릴 썩에 반다시 레와 악을 먼저 마련허나니 진실로 심상히 알바 안이로다.....사람의 벼살을 허던지 장사를 허던지 로동을 허던지 종일토록 애쓰며 슈고허다가 오후 네시나 다섯시에 집에 돌아와 밥 먹은 후에 풍악을 듯거나 노릿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허야 이 세상의 괴로운 것을 니저바리고 흥 번 쾌락하게 놀이야 정신이 상활호고 괴운이 활활허야 티일에 썩 부즈런히 일홀 여디가 잇것만은 우리나라 사름은 그러치 안이허야 흥세홀다는 사름은 마음이 잔졸호고 성품이 괴벽허여 썩에도 질겁게 노는 마당에는 참에도 안이호고 썩흥 참에코져허야도 막대호 직물을 허비치안으면 놀지못허여 방탕호 사름은 기악에 몸이 빠져서 몸과 집을 망허니 이는 일은바 과불급이로다 외국의 풍속을 보건디 곳곳마다 공원을 민들여 일반인민의 산보허며 노는 마당을 삼고 간간히 연극과 니악이하는 집과 음악회 등속이 잇서서 사름의 마음을 질겁게허니 참 아름다운 풍속이라 홀지라....¹⁵⁾

14) 김기란, 「한국 근대계몽기 신연극 형성 과정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0-111쪽.

15) 「단성사(團成社)를 평론함」, 『제국신문』, 1907년 8월 10일.

②...서양 정치가가 말하되 풍속을 기량함에 속하기는 연설이 학교보다 낫았고 소설이 연설보다 낫고 소설보다도 더 나은 것은 연극이라 하니 그 말이 극히 유리한지라 그럼으로 문명헌 나라에는 연극이 처처에 잇서 구경하는 사람이 늘마다 구름갓치 답지할 뿐 아니라 친왕과 황족의 존중헌 디위와 정부대관의 고귀헌 신분으로도 종종 관람하며 유지신스와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울적하던가 정신이 로고하면 각기 연극장에 가서 유쾌히 소창하며 기타 려항 부녀와 일반 로동자들도 다슈히 구경하야 부지불각중에 감각함도 있고 경성함도 잇서 즈국의 선악간 력스와 후박간 풍속이며 나라를 스랑하고 동포를 앗기는 여러 가지 싱각이 유연히 싱기나니 이 일로 밀우워 불진디 연극장은 나라마다 업지 못홀 것이라 하야도 파도홀 말이 안이기로.....¹⁶⁾

①의 논설은 서양의 “연극”과 단성사의 “연희”를 분명히 구분하며, 단성사의 연희가 연극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한다. 위의 논설에서 주장하는 연극의 순기능은 “정신이 상활하고 기운이 활발하야 락일에 쏘 부즈런히 일홀 여디가 잇”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상의 활력소로써 연극의 기능을 강조하며 “사람의 마음을 질겅게하니 참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②의 논설과 함께 읽으면 일상 속 풍속개량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의 논설에서는 학교<연설<소설<연극의 순으로 풍속개량의 효율성을 따지며 풍속개량은 학교교육, 연설의 담론, 소설의 이야기보다 연극장에서 보는 연극이 가장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그러한 효과는 “각기 연극장에 가서 유쾌히 소창하며 기타 려항 부녀와 일반 로동자들도 다슈히 구경하야 부지불각중에 감각함도 있고 경성함도 잇서 즈국의 선악간 력스와 후박간 풍속이며 나라를 스랑하고 동포를 앗기는 여러 가지 싱각이 유연히 싱기나니”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연설회에 참여할 수 없고 글을 읽을 수 없지만, 보고 느끼는 생애적

16) 「연극장을 급히 기량할 일」, 『제국신문』, 1908년 10월 29일.

능동적 감각¹⁷⁾을 지닌 불특정 다수의 여항부녀자와 일반 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기서 일상의 풍속개량이 특정 지식인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 타자성을 지닌 포괄적 계층을 위한 전략이자 기획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08년 5월 14일과 5월 15일에 연속 게재된 논설 『소설(小說)과 풍속의 관계』에서는 구소설과 신소설을 대비시켜 소설과 풍속의 관계를 논한다. ①에서는 소설의 영향력이 일상의 삶에 미침을 주장하며, 중국을 배경으로 한 구소설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②에서는 구소설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신소설 작가들이 분발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소설(국문소설)이 “부녀자의 소일거리에 지나지 못한다 하여” 여성들에게 주로 읽히는 현실을 개탄하는 한편, 현실의 핍진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문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여 일상 속 미시적 상제감각의 포착을 신소설의 주요 덕목으로 상정하고 있다.

①...숱흐다 이 일이어 너 나라 사름의 괴이흔 일을 기록지안코 항상 송나라이나 명나라 사름의 일을 들어 말흐얏스즉 이는 일반 우부우부(愚夫愚婦)로 하야곰 남의 나라 잇는 줄만 알게 호고 너 나라 잇는 줄을 몰오게 흙이라 우리나라 사름의 나라 사랑호는 마암이 부족흔 원인이 소설에 잇스며 명산대천이나 부처의게 기도하야 낫치 못호던 즈식을 나얏다 하니 이는 인심을 고희케 하야 무녀 복술을 확실히 밋게 흙이라 우리나라 사름이 즈기의 힘힐 바 의무와 직분을 다택 안이호고 귀신 썸기기를 일삼는 원인이 소설에 잇스며 전장에 나아가 쓰흙을 익인즉 그 공으로 부귀공명을 누린다 호얏스니 이는 선비의 괴운이 비루하야 천추만세에 유전홀 큰 스업은 세우고져 안이호고 목전의 영화를 탐호게 흙이라 우리나라 사름이 스농공상간에 직업

17) 문화수용층은 본질적으로 능동적인 존재이다. 이때의 능동성이란 물론 지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능동성이다. 대중독자나 관객의 지각하는 과정의 능동성이 전제되지 않고 시선의 전유나 관객으로서의 호명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인형에게 명령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김기란, 『한국 근대계몽기 신연극 형성 과정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27쪽.)

을 힘쓰지 안코 다만 벼살하기에만 욕심이 간절흔 원인이 쏘흔 소설에 잇도다 그런즉 소설과 풍속의 관계흠이 진실로 막대흔지라¹⁸⁾

②.....다만 근력에 **신소설(新小說)**을 짓는 자로 **하야곰** 고인의 필법을 본받지 말고 통쾌흔 문장과 격절흔 언론으로 괴이흔 소설을 만히 지어 **우리 나라 일반 인심으로 하야곰** 구습을 일신하게 고치고 문명흔 식정신을 가지게 하면 **넷소설**은 자연히 그림자와 자취가 씌어지리니 무엇을 족히 근심하리오 쏘 엇더흔 자는 말하되 **국문소설**은 부녀즈의 소일거리에 지나지 못하다 **하야 슈호지** 서상귀 삼국지를 무상히 재미잇는 소설로 알고 닷토어 보니 이것도 쏘한 넷것만 알고 식것은 몰으는 마암과 **한문을 존승**하고 **국문을 천히 녀이는** 되셔 나왔도다....소설을 짓는 자| 인정의 통투흔 바와 스틱의 긴요흔 바와 경치의 핏진흔 바를 말하교져 하면 즈기 나라의 국어가 안이면 도더히 능치 못홀지라 그런 고로 우리는 우리의 국문이 안이면 능히 소설을 짓지 못하고.....¹⁹⁾

앞서의 논설들은 『제국신문』이 주도했던, 여성들의 경험의 장(場)인 미시적 습속을 개량²⁰⁾해야 한다는 풍속개량론의 전략이 여성을 객체이자 주체로 수용했던 신소설과 (신)연극을 통한 대중문화개량론으로 구체화되는 정황을 보여준다. 연극개량론을 계몽의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연극이 창출하는 정서적 효과를 통한 국민통합과 국민국가 형성과 관련시켜 논의²¹⁾하는 경우 『제국신문』이 주도했던 이와 같은 대중문화전략으로서의 연극개량론의 내용은 반영되기 어렵다. 하지만 일상의 활력소로써 연

18) 「소설(小說)과 풍속의 관계」, 『제국신문』, 1908년 5월 14일.

19) 「소설(小說)과 풍속의 관계(속)」, 『제국신문』, 1908년 5월 15일.

20) 남성들의 정치(거시적) 영역과 여성들이 일상(미시적) 영역의 실천이 교접하며 사회적 효과를 발했던 대표적 사례가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이다.

21) 우수진, 「개화기 연극개량론의 국민화를 위한 감화기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 19 집, 한국극예술학회, 2004와 이상우, 「1900년대 연극개량운동과 근대 국민국가 만들기」, 『한국연극학』, 한국연극학회, 2004.

극의 기능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국문소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위의 논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상’과 ‘여성독자’라는 내용이다. 남성의 정치영역이 아닌, 여성의 일상 영역에서, 여성들의 문화적 상제감각을 발견하고 그것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문화적 상제감각이란 일상의 삶을 장식하는 불규칙함과 불균형, 서투름, 진부한 상투성이 주는 즐거움²²⁾을 통해 구성된다. 남성 지식인층이 독점했던 이론적으로 정련된 논리적 계몽 논의와 달리, 문화적 상제감각은 매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개연화 과정을 거쳐 문화로 구성되어 나간다. 문화를 “현실 구성의 목적을 위해 매체들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행위”²³⁾로 이해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1907년 이후 새로운 문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매체가 필요했고, 여기서 대중문화의 구성 객체이자 주체로서 여성²⁴⁾과 여성의 감각을 매개한 매체가 『제국신문』이었다.

『제국신문』의 발행이 『협성회보』와 『매일신문』과의 관계 속에서 대정부 비판의 시각을 대중적으로 모색하려는 전략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하면, 『제국신문』이라는 매체와 그것이 구성한 대중문화의 관계는 한층 이해할 만하다.²⁵⁾ 『제국신문』을 창간한 이종일이 자신의 「목암비망록」에서 언급했던 계몽은 구체적으로 대중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발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발행인인 이종일은 대중의 권리 확장을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했고 하층 여

22) 로저 스크러톤(김경수 옮김), 『건축미학』, 서광사, 1985, 제9장 참조.

23) W.Faulstich(Hg.), *Medien und Kultur*, 1991, p. 10.

24) “총리대신 리완용씨의 부인과 각부대신의 부인일동이 기타 식구 수백명을 명솔하고 직작일밤에 식문안 원각사에 가서 각향 연극을 관람하고 작일 오전 두시경에 각기 헤어져갔다대라”(「구경을 여럿이 갖네」, 『제국신문』, 1908년 10월 23일.)

25) “1898년 7월 초 독립협회 과격노선자들의 정변 계획이 발각되면서 독립협회는 온건노선자들에게 넘어가고,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류영석, 이승만, 이종일 등은 협성회를 이탈하여 『제국신문』을 간행했다. 『제국신문』은 일반 대중운동을 고조시키기 위해 비판의 초점을 주로 정부로 맞추었으며, 일반 대중에게 개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문명 부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역설하였다...” (문일웅, 「만민공동회 시기 협성회의 노선 분화와 『제국신문』의 창간」, 『역사와 현실』 83호, 2012, 288-289쪽.)

성들까지도 대중운동에 끌어들이 수 있는²⁶⁾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한 고민의 반영으로 『제국신문』은 여성대중들의 상세감각을 구성하는 매체의 역할을 자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국신문』의 기획은 구연학의 신소설 『설중매』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개연화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태순이 같으되 “연희의 필요함을 형이 몰으는도다 동서양을 물론하고 풍속기량하는 효험이 학교가 제일이라 하겠스나 그 효험의 속함으로 말하면 연설이 학교보다 압서고 소설이 연설보다 압서는니 소설보다도 압서는 것은 연희라 하나니 서양각국에서는 연희장을 극히 장하게 건축하고 화려하게 설비하였스며 그 규모는 사람은 상당한 학문이 잇서 물정을 추척하고 고금을 통달하는 고로 연희하는 일이 모다 시세에 적당하여 부인아동의 구경거리가 아니오 상등사회의 심신을 짓겹게 하는 처소가 되나니 그런고로 각국에는 예왕과 후비라도 의례히 구경하여 우리나라 연희장과 갖지 아니하니....구경하는 사람도 또한 유의유식하여 무항산한 사람과 경박허량하여 무지각한 무이 썬이니 진실로 기탄할 바로다. 하로라도 밧비 그 방법을 기량하여 력사의 선악과 시세의 가부를 재미있게 형용한 책야 남녀구경하는 사람의 안목에 만족할 것이오 외국사람에게도 조소를 면하리도다.”남덕중이 무릅을 치며 같으되“선싱의 말삼을 드르니 비로서 연희를 기량함이 필요함을 가히 알지라 나도 어딴까지던지 찬성하고자 하노라”²⁷⁾

1907년 이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말이나 글, 연설을 잘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함께 영웅의 자질로 손꼽혔던 것²⁸⁾은 눈물을 자아낼 정도로 분기(奮起)된 감정이 글이나 연설처럼 사

26) 문일웅, 「만민공동회 시기 협성회의 노선 분화와 『제국신문』의 창간」, 『역사와 현실』 83호, 2012, 271쪽.

27) 구연학, 『설중매』, 회동서관, 1908.

28) 1908년 3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 「서호문답(속)」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회적 힘으로 실천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²⁹⁾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감각 주체로서의 ‘개인’을 확인하는 정황은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여성 논자들의 논설에서도 확인되지만,³⁰⁾ 『제국신문』의 잡보에 실린 평범한 여성의 글에서도 발견된다.³¹⁾ 1907년 후반 『제국신문』에 표출된 여성들의 감정은 눈물의 정서를 분기시키는 대중예술을 통해 발산될 수 있었고, 그것은 신소설, 신소설을 연극장 무대에 올린 신연극으로 파급되어 1910년대 여주인공의 감정을 중심으로 서사가 극화³²⁾되는 변안 신파극의 시대를 추동시킨다. 여성 주인공을 통해 여성독자와 청중들에게 눈물을 감염시키는 상황을 단순한 저급 감정의 토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특정 사안에 대한 단일하고도 상동적인 감정은 곧 그 사안에 대한 집단적 승인이자 동의를 의미하고 그를 통해 결집된 다수의 힘은 사회의 장(場)을 구성하는 실천적 힘으로 작용³³⁾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문화적 상관물이 1908년 원각사의 「은세계」 공연³⁴⁾이다. 「은세계」 공연은 풍속개량론이 연극장 개량에서 연희개량으로 선회되면서 수렴된 새로운 연극, 신연극이었다. 현실에

같이 논하고 있다. “.....쥘인 왈 이거슨 오희흠이 심흐도다 영웅은 별 물건이 아니라 말도 잘흐고 글도 잘흐고 락루도 잘흐야 능히 사름을 감동케 흐며 사름을 놀늬며 사름을 격동흐는 자도 영웅이니 연설노 사름을 감동케 흐는 자도 지금 잇고 문장으로 사름을 놀늬는 자도 잇고 락루흐야 사름을 격동흐는 자도 내가 보앗스니 우리 한국에 다수흐 영웅이 업다 흐리오 나는 유지자가 다 영웅이라 흐노니 이러흐 연설가와 문장가와 락기를 보지 못흐였스며 알지 못흐노요.”

29) 김기란, 「한국 근대개량기 신연극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47쪽.

30) 김복순, 앞의 논문, 374쪽.

31) 「평안도 안주 김희정의 미망인 리소사의 호소」, 『제국신문』, 1908년 3월 26일-28일.

32) 윤민주, 「가정비극류 신파극에 나타나는 멜로드라마적 과잉(melodramatic excess)에 대한 연구-1910년대 초기 변안소설 각색 신파극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55호, 2011, 533쪽.

33) “일전밤에 영선군 리준용씨가 식문안 원각사에 가서 은세계 신연극을 구경홀 썬에 엇더흐 창부가 강원도 관찰스 정모의 불법허더 횡위를 극히 설명흐는지라 영선군이 그 창부를 부러 분부흐되 량반의 스실을 넘어 공박흐지 말나흐얏다더라”(「남이 비평흐는 줄 몰으시오」, 『제국신문』, 1908년 11월 21일.)

34) 1908년 11월 13일과 15일자 『제국신문』에는 「은세계」 공연 광고가 실린다.

서 취체한 소재³⁵⁾, 원주 정감사의 횡포로 해체된 가정, 고난의 세월을 인고하는 두 여성이 등장하는 신소설 『은세계』는 신연극 「은세계」로 구현되고, 여성 관객의 눈물과 남성 관객의 분노를 끌어내며 사회적 실천의 힘³⁶⁾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3. 신문연재 신소설과 신연극의 매체적 교환과 여성대중의 구성

1907년 9월 20일 폐간을 선언하고 발간을 중지했던 『제국신문』은 10월 3일부터 다시 신문을 간행한다. 1907년 5월 4일 『제국신문』은 “간신이 기계를 구득하고 부족한 주장을 준비하여 방장설비중이온즉 이달 십륙일부터는 지면을 넓혀 신문면목을 일신케 하고 론설과 소설도 일층 주의하여 사회의 정신을 대표하려니와 관보와 외보를 기적하여 첨군자의 사랑하시는 후의를 감고져 호오니 더욱 사랑하시기 바라오며……”라는 「특별고책-본보 확장하는 일」을 신문의 앞 장 논설란 앞에 게재하며³⁷⁾ 소설 지면 배치를 예고한 후, 이인직의 「혈의루」 하편을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연재했다. 『제국신문』을 인수한 ‘탄해생’이라는 필명의 정운복이 타 매체와의 경쟁을 의식, 소설 지면을 신설하고, 단편소설³⁸⁾이라는 표제도

35) 가령 『제국신문』 1907년 3월 23일자 잡보는 「은세계」의 스토리를 떠올리게 한다. “강원도 원주 사는 원소사가 해군에 사는 권중학이가 작년 십일월에 상처하고 횡성땅에 사는 과녀를 작배코자 하여 돈 삼백량을 먼다가 해동에 사는 리석우 등 무뢰배에게 피타하여 사일만에 죽은지라. 해도 재판소에서 엇지 청축을 밧앗던지 우금 몇달에 판결치 안이함으로 법부에 호소”

36) “혜천탕주인 윤계환씨가 삼작일 밤에 신문안 원각사에 가서 각종 연극을 관람하고 은세계 신연극을 일장박론하다가 풍파가 나서 도라갓다는디 히스건을 인훤인지 지작일 오후 스시경에 윤씨가 경시청에 피착하였다더라”(「윤씨 피착」, 『제국신문』, 1908년 12월 2일.)

37) 이러한 신문의 방향은 1908년 8월 8일 간행 10년 기념호에서는 “기념호로부터 대혁신을 힘해야 공명정대헌 론설과 확실무의헌 잡보를 이전보담 일층이나 광치나게 기적하여 본사의 대목덕을 달코져함”으로 구체화된다.(「제국신문 창간만십년기념 광고」, 1908년 8월 8일.)

사용하는 등 새로운 문화적 감각을 보여준다.

이인직이 대한신문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중단³⁹⁾되었던 소설란은 이어기담(理語奇談)으로 채워지다가 이해조가 담당하게 된다. 1907년 『제국신문』의 『고목화』에서부터 1910년대 이후의 신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제국신문』의 연재 소설가이자 신문 기자였던 이해조가 보여준 행보는 특히 주목된다. 최초의 대중소설 작가라 할 수 있는 이해조를 통해 『제국신문』은 신소설과 (신)연극이 상호참조하며 교환되는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의 대중문화적 감각을 보여준다.

1907년 6월 5일 시작된 이해조의 신소설 『고목화』⁴⁰⁾는 미완으로 10월 4일 중단되고, 곧이어 10월 5일 『빈상설』의 연재가 시작되어 1908년 2월 12일까지 계속되었다. 1908년 2월 13일 『원앙도』의 연재를 시작하여 4월 9일 연재가 미완으로 중단되었고, 1908년 4월 25일 『구마검』을 연재하여 7월 23일 연재를 종료한다. 이후 7월 24일 정치소설(『홍도화』), 9월 18일 가정소설(『만월디』), 12월 4일 탐정소설(『쌍옥적』), 1909년 2월 13일 신소설(『홍도화』)을 발표했는데, 특이한 것은 신소설에 특정 표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소설이 지닌 하위 장르적 차별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완재되지 못했던 이인직의 신소설 『혈의루』와는 달리 이해조의 신문연재 신소설은 그 형식과 표제에서 진행 중인(신연극) 혹은 다가올(신과극) ‘연극’을 의식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해조는 연극소설(『구마검』), 정치소설(『홍도화』), 가정소설(『만월디』), 탐정소설(『쌍옥적』) 등의 표제를 통해 자신의 작품의 성격을 차별적으로 부각시켰고, 외적 형식에서도 대화 형

38) 「단편소설」, 『제국신문』, 1908년 8월 8일.

39) “본보의 옥년전은 소설기자가 유고하야 몇일 동안 덩지호오니 조량하시옵”(『血淚暫停』, 『제국신문』, 1907년 6월 4일자.)

40) 1908년 2월 13일 「고목화」 단행본 광고. “이 소설은 풍속기량에 데일 필요흔 칙이라 춘향전 소디성전 등 갖치 허탄 음란흔 말로 풍속을 병드리는 것에 비홀 바 아니오니 인민 스상을 도덕상으로 인도코져 하는 유지부인 신스의 불가불 보실 칙이오.”

식을 두드러지게 구사해 극적 형식의 탐색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해조 소설의 표제를 이루는 “정치와 가정”은 일본신파극의 주요 내용으로, 이 중 ‘가정’은 1910년대 조선의 신파극으로 이식되는 변안신파의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이었다. 가정비극류 신파극에 정치, 탐정의 성격이 혼재⁴¹⁾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해조의 작품 중 1910년 광학서관에서 간행된, 토론소설이라는 부제가 붙은 『자유종』도 대화 형식의 토론체였지만, 『제국신문』에 연재된 “연극소설”이라는 표제가 붙은 『구마검』에서는 특히 공연 무대화를 염두에 둔 듯 대화 형식이 두드러진다. 다른 소설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숫자가 적다는 점⁴²⁾도 『구마검』의 연극대본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실제 『구마검』은 연재가 끝난 후 월각사에서 공연되었다.⁴³⁾ 1908년 1월 1일자 중앙서관 광고에서 『금수회의록』을 “연극적 소설”로 홍보⁴⁴⁾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대화 형식이 당대 장안사와 연흥사 등 흥행 극장의 공연물을 염두에 둔 방식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곧 극장에서 공연하는 연행물은 대화의 형식을 담지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화 형식은 서사가 외화되고 극이 내면화된 방식으로 이해된다. 드라마 형식의 최소한의 요소 ‘대화’를 형식으로 취하지만, 대화 형식이 추동하는 극적 효과는 내면화되고, 극의 내용인 서사가 외화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해조의 소설이 연재되던 당시 단편소설이라는 표제로 『제국

41) 윤민주, 앞의 글, 509-510쪽. “한국의 가정비극류 신파극 속에 정치극, 전쟁극, 범죄극, 탐정극적 면모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2) 배정상, 『帝國新聞』 소재 이해조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77쪽.

43) “再昨日下午十時量에 新門內 圓覺社에서 小說 驅魔劍을 實地 演劇하느니 盲人 三名을 雇入(雇金은 每名 五十錢式)하야 誦經의 貌를 行하느니 層階를 上하다가 其中 一名이 失足仆地하야 右股를 傷함으로 該盲人이 其誣欺事를 詰問退去하얏다더라”(『盲人被欺』, 『皇城新聞』, 1909년 7월 27일).

44) “...本小説은 新體文壇의 演劇的 小說로 空前絶後의 一大禽獸會를 開催하고 海陸物이 演壇에 集合하야 人類와 禽獸의 愚劣과 造化主宰의 眞理를 討論批評하든 光景을 傍聽實寫하야 독자제군에게 소개로 금일오.....”

신문』에 실린 작품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1908년 8월 8일에 실린 “단편소설”이라는 표제가 붙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우마지공(牛馬功爭)』은 우화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쫓다온 풀 긴 언덕 우에 한 물건이 있느니 머리에 두 쏘을 니고 발즈최는 여덥팔즈의 형용이오 입으로는 싹힌 풀을 먹으며 소리로는 무리파리를 쫓츠 혹 늡기도 호고 혹 니러셔기도호야 임의로 잇더니...”말과 소의 논쟁을 통해 우회적으로 교훈을 전하는 『우마지공(牛馬功爭)』은 대화의 형식은 찾아볼 수 없는 짧은 분량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이인직에서 비롯된 행보, 즉 신문연재 신소설을 신연극의 각본재료로 활용하는 과정을 의식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신문연재 신소설과 신연극을 연동해 실천했던 이인직은 1908년 유일서관의 『치악산』 단행본에 ‘연극신소설(演劇新小説)’이라는 표제를 사용했고, 신문에 연재했던⁴⁵⁾ 『은세계』는 ‘신연극’이라는 새로운 수사를 내세워 장안사나 연흥사에서 공연되는 연행물과 차별화 시키는 전략 속에 원각사에서 공연되었다. 동시에 1908년 11월 20일 동문사에서 출간된 단행본 『은세계』는 ‘신소설’이라는 표제어를 新演劇의 집자로 구성하는 탁월한 디자인 감각을 보여주며 신소설과 신연극의 교환과 호환가능성을 드러냈다.

이해조의 『제국신문』 연재 신소설에서 감지되는 앞서의 특징들은 1908년 『은세계』 공연과 함께 신연극이 인기를 끌고 구소설 계열 창극 연행물이 장안사⁴⁶⁾와 연흥사⁴⁷⁾ 등에서 인기를 끌 때, 그것의 대본으로 활용

45) 김기란, 「신연극 <은세계>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참조.

46) 1908년 7월 14일 <연희장 계속 기설> “증부 어의궁궐에 설치헌 장안사 연희장에 서는 저간에 지경군졸함을 인호야 연희를 덩지호얏더니 근일에 또 직산가춤 죠, 윤, 최, 김 네사람이 경비를 지출호야 일간에 다시 계속 성형헌다호며 직작야부터 회사에서 관기연주회를 성형중인디 희연주회는 삼일간만 설형헌다더라”

47) 1908년 5월 6일 잡보 <연흥사의 광디모집> “증부 스등에 설치헌 연흥사에서 장크 삼국적 화용도 타령의 그 모양을 진경으로 연희케 호기 위호야 희 경비는 스만량으로 예산호고 그 연희에 압용홀 광디는 삼십명 가량으로 덩호얏는디 일전에 연흥사 샤원이 그 광디를 모집홀츠로 삼남등디로 내려 갓다더라”

될 수 있는 구소설 각색 작품을 발표한 것과는 맥을 함께 한다. 곧 1910년대 이해조는 「춘향가」의 개작인 「옥중화(獄中花)」, 「심청전」의 개작인 「강상련(江上蓮)」, 「흥부가」의 개작인 「연의각(燕의脚)」, 「수궁가」의 개작인 「토의간(兔의肝)」등을 집필했는데, 이는 당시 명창들이 구술하고 이해조가 산정(刪正)한 작품⁴⁸⁾들이다. 이 외에 이해조는 극장에서 공연된 「봉선화」도 집필했다.⁴⁹⁾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상의 풍속개량, 대중예술개량을 통해 여성들의 문화적 상제감을 발견하는 한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각 주체로서 ‘개인’을 확인”하는 사회적 실천의 힘으로서 다양한 여성계층을 호명하는 대중전략을 구사했는바, 이해조의 매체호환을 염두에 둔 신문연재 신소설은 그러한 지향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신문연재 신소설과 단행본으로 간행된 신소설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에서 차이를 지닌다. 단행본이 소설 텍스트만을 독립시켜 재화의 교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반면, 신문연재 신소설은 논설이나 잡보와 함께 분할된 지면 안에 소설을 배치하여 당 매체가 지향하는 담론을 구체화 한다.⁵⁰⁾ 따라서 이해조의 신문연재 신소설이 『제국신문』의 지향점을 반영했다는 점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제국신문』을 통해 매개된 여성대중의 문화적 상제감,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연대본을 의식한 이해조의 신소설에 내장된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곧 『제국신문』에 연재된 이해조의 작품은 『제국신문』의 신문기사를 스토리의 재료로 활용하되, 그 재료들을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여기서 ‘멜로드라

48) 김주영, 「이해조 소설 연구-1910년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5, 13쪽.

49) “본보에 게재하야 대환영 갈채를 받던 봉선화연극은 오일에 대연회 흥행을 사도 연흥사에서 열었더라. 남녀관람자는 정한 시각 이전부터 동구가 좁도록 답지하야 오후 팔시에는 이미 만원의 성황을 이루었거...”(<연극계-鳳仙花劇의 大盛況>, 『매일신보』, 1913년 5월 7일자.)

50) 배정상, 앞의 논문, 59쪽.

마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제국신문』의 신문기사에 거의 매일 등장하다시피 한 “가정 내 시련”⁵¹⁾과 그것이 표출하는 “낭만적 파토스”⁵²⁾와 연동하며 여성들의 문화적 상제감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벤 싱어가 간명하게 지적한 것처럼 멜로드라마는 “강렬한 파토스, 과장된 감상성, 도덕적 양극화, 비(非)고전적 내러티브 역학(가령 비극적 드라마의 주인공이 목적-열정-인식의 과정을 겪는다면,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은 자극-고통-징벌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스펙터클한 효과”라는 5가지의 개념군을 핵심 구성요소로 한다.⁵³⁾이해조의 신문연재 신소설에서 발견되는 여주인공의 고난, 선/악을 대변하는 인물, 시적 정의를 실현하는 권선징악적 결말은 벤 싱어가 정리한 멜로드라마의 5가지 개념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조의 『제국신문』 연재소설에 나타나는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완의 「고목화」는 『제국신문』의 풍속개량론 중 과부의 개기⁵⁴⁾라는 문제와 연동하여 과부 청주집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빈상설」은 『제국신문』의 잡보에 자주 등장하던 극악하고 억척스런 여성 유형⁵⁵⁾, 금분과 평양집이 결국 법

51) “작일 한성재판소에 서서 만리재 인민 사오십명이 제진하여 등소하였는데 그 사실인 즉 해동에 사는 서가의 명자가 그 이웃집 이가의 아내를 잠통하다가 본부에게 발각되매 본부는 그 계집을 간부에게 맡기고 다시 장가들 부비 1만량을 징급할 뜻으로 수표를 받았더니 서가가 도리어 한성재판소에 정소하여 그 수표를 환추코자 함으로 일동 인민이 **공분지심을 이기지 못하여** 등소하고 서가의 유부녀 통간한 죄를 징치하여 달라고 함이라더라” (「잡보」, 『제국신문』, 1907년 5월 9일.)

52) 벤 싱어(이위정 옮김),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17쪽.

53) 벤 싱어(이위정 옮김), 위의 책, 19쪽.

54) 「로설-너즈의 기가는 터리의 췌췌함」, 『제국신문』, 1908년 6월 20일, 「괴서-청춘을 규중에서 늪지물일」, 『제국신문』, 1908년 6월 23-24일, 북촌일과부, 「괴서-청양의 정상」, 『제국신문』, 1908년 6월 25-26일.

55) “전송지 민병숙씨는 첩의 늪음을 한탄하야 절문첩을 었을 계획으로 김제동씨와 부동하야 로점장소스의 집문권을 일본인에게 던당하야 김씨와 그돈을 나호야 췌는디 장소스가 한성지판소에 덩소하야 민 김 량씨를 감옥서로 착슈하얏는디 평리원 폰스 송진욱씨가 오십원을 너고 기타모모씨가 다소 주렴하야 그돈을 물어주고 김씨를 방황하얏는디 민씨는 이갓흔 성렴에 그져 피슈하얏스되 그 빅씨 민병한씨

의 처벌을 받고 버림받은 조강지처로 고난을 겪던 이씨부인이 가족과 만나 가정을 회복한다는 스토리를 보여준다. 『원앙도』는 여주인공 금취의 고난과 행복한 결말을 다루었고, 형식상 대화체의 극형식과 곳거리 연행조를 실험한 연극소설 『구마검』⁵⁶⁾은 『제국신문』 논설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던 무속신앙을 스토리를 추동하는 주요 계기로 삼았다. 『구마검』의 주요 인물인 함진해와 최씨부인은 무당의 굿과 풍수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인물이다.

한편 『제국신문』에 연재된 정치소설 『홍도화』 상편에서는 이채롭게도 총각 상호와 혼인하려는 과부 태희의 고난이 초점화되며 과부와 총각의 혼인 문제가 주요 갈등으로 부각된다. 반면 이해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1910년 5월 유일서관에서 간행된 『홍도화』 하편은 고부 혹은 계모와의 갈등이 부각되며 전형적 멜로드라마의 플롯을 구성한다. 『제국신문』에 연재된 『홍도화』 상편에서는 풍속개량론 연재 첫 번째 논설인 「녀주의 기가를 허홀 일」⁵⁷⁾이 본문에 직접 인용되어 있고, 이것은 자살을 결심한 태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다만 『홍도화』에 인용된 내용은 실제 논설과 달리 변형되었는데, 논설에서는 개가를 하더라도 혼인 절차에 맞게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도화』에서는 여성이 개가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회적 관습 또는 시선 때문이라며 여성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당부한다.⁵⁸⁾

는 형제도 초요호되 그 계씨의 방화홀 도리를 싱각지 안이호는 고로 사름마다 민병한씨의 지물앗기는 마음을 비평홀 쏘터러 민병숙씨는 거의 죽을 디경에 이르렀다더라” (『잡보-첩이 원슈야』, 『제국신문』, 1908년 7월 22일.), “경상북도 밀양군 사는 손정선씨가 청도군 사는 기싱 옥선과 슈츠 상종호 일 이터디니 옥선이 손씨를 디호야 돈 몇천량만 쑤어달나호거날 손씨가 시헝치 안이호얏터디니 그 기싱이 손씨의 던답 빅어석 쉼슈호는 문권을 썩얏셔갓는지라 손씨가 상경호야 공소원에 호소호얏터디니 휘원에서 공변되히 처결호야 츠자쥬엇다더라” (『잡보-강도보다 더호 계집』, 『제국신문』, 1908년 10월 18일.)

56) 양세라, 「근대계몽기 신문 텍스트의 연행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149-161쪽.

57) 「론설-녀주의 기가를 허홀 일」, 『제국신문』, 1907년 10월 10일.

58) 배정상, 앞의 논문, 84쪽.

흥미로운 것은 「홍도화」의 특이한 소재가 이미 『제국신문』 잡보란에 소개된 현실의 사실내용과 연동되어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국신문』 1908년 7월 23일자 잡보는 「인륜의 변괴」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사회적 스캔들을 전하고 있다. “전판서 김윤식씨의 외손녀와 궁니부 시종 리교영의 결혼혼은 일반국민의 모범이 될만하다고 사름마다 칭송하는바인디 근티 전하는 소문을 드른즉 리교영씨의 빅씨 리우영씨는 완고 고루한 마음으로 그 계슈를 슈씨로써 디접지 안코 그즈 질빅로 하여곰 셔모라 칭케하고 쏘 그 대부인 홍씨는 식며느리의 폐빅을 물니치고 단빅로 쏘 아리서 절하게 하고 식모라 불이지 못하게 하여 마님이라 불리게 하라 하였다니 이는 인륜의 변괴라 하여 물론이 즈즈흔디 만일 이갓게 하기 말지 안이면 일반사회의 유지한 선빅들이 모혀 별반쇼쳐하라 한다더라.” 이 기사는 판서의 손녀와 시종의 신분차이를 뛰어넘은 혼인, 그로 인한 여성의 고난을 “인륜의 변괴”라고 정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인륜의 변괴”란 신분차이를 뛰어넘는 혼인이 아닌, 그러한 혼인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집안의 질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신분차이를 혼인장애물로 크게 문제삼지 않는 진일보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가정소설 「만월디」는 어질고 착한 라씨부인이 남편 신록의 죽음 이후 겪는 고난을 주요 플롯으로 구성했고, 탐정소설 「쌍옥적」에서는 결세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여탐정’ 고소사가 사건을 추동한다. 신소설 「모란병」에서는 여주인공 금선이 겪는 고난이 전경화되는데, 그녀의 고난을 구성하는 내용, 즉 구박받는 민며느리 생활⁵⁹⁾이나 기생집에 작부로 팔려가는⁶⁰⁾ 정황은 당시 현실에서 취체된 것으로, 귀인

59) “남부 시곡사는 죠소스가 금년 음력 삼월경에 십팔세된 쏘을 북구 지동사는 최상 극씨와 혼인하였더니 그 신부가 시부모의 학딴를 견디지 못하여 친딩에 도라와 잇는지라 죠소스가 직작일에 그 쏘을 디하야 말하되 오날은 너를 단당 치송하겠스니 가서 구고에게 말을 거스르지 말고 잘 잇스라 효유하고 부덕에 들어가 밥을 지을 즈음에 그 쏘이 틈을 타서 도주한고로 방금 슈식하는 쯤이라더라”(『잡보-식 집 마다고 도망질』, 『제국신문』, 1908년 10월 6일.)

60) “경괴 광쥬군 사는 강림인이라 하는 자이 저의 습촌 강진오의 안희 의성녀를 유인

의 도움을 받아 근대식 교육을 받고 결혼 후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해피 엔딩의 도식적 결말로 마무리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신문기사는 이해조의 신문연재 신소설로 개연화되는데, 이때 특히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부각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멜로드라마는 태생적으로 사회문화적 전환기, 그것의 이념을 반영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인정과 관객의 기대시스템을 조작함으로써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장르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멜로드라마는 “순수한 형식적 입장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인습적, 도식적이고 인위적인 장르, 즉 새롭고 자발적이며 자연주의적 요소들이 거의 들어갈 여지가 없는 하나의 공식(公式)과 도 같은 장르”⁶¹⁾로 간주되기도 한다.

『제국신문』에 연재된 이해조 신소설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그것의 플롯은 하나의 공식처럼 멜로드라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의 중요한 양상에 조용하며 거기서 생산되는 꿈과 욕망을 과장되게 복제해내는 멜로드라마⁶²⁾의 요소들이 탑재된 이해조의 신소설은 1910년대 신파극의 대본으로 활용되어 무대화되었을 때, 그 안에 장착된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통해 스펙터클한 무대 장치 없이도 눈물을 자아내는 감정의 분기를 끌어낼 수 있었다.⁶³⁾ 일상 현실 속 여성의 구체적 경험이 멜로드라마의

햐야 서울가서 죠흔 영업을 햐야 취리햐즈 햐고 다리고 올라와서 남부 석다리 사는 밍원지에게 팔아먹었는디 직작일에 강진오가 올라와서 그 스실을 들어 경찰서에 호소햐앗더니 히셔에서 스실햐 후에 밍모를 신칙햐야 계집은 강모에게 너야주라햐즉 밍모의 말이 그 계집을 었을 썸에 돈 삼십원을 들었다햐거늘 그 돈은 중간에서 팔아먹은 자에게 차지라햐고 일테 방송햐앗다더라”(『잡보-숙모를 팔아먹는 늀』, 『제국신문』, 1908년 10월 14일.)

61) 아놀드 하우저(염무웅·반성완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창작과 비평사, 2004, 260쪽.

62) 벤 싱어(이위정 옮김),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86쪽.

63) 윤민주, 앞의 논문, 533-534쪽에서 재인용. “일전밤 연흥사에 구경을 줌 갖더니 구경은커녕 울기를 통 가웃이나 울고 왔서 그날 맛춤 장한뎡을 실디로 흥햐햐는디 심순이가 대동강물에 빠져지러나아갈 썸 으연한 달은 희미햐게 밍치여 잇고 파도는 흥햐햐야 사름의 심wid을 놀라게 햐는디 그 썸 처라히 부는 단쇼 쇼리는 심순이

최루성 정서로 표출되고, 그것이 대중적 공감으로 확산되며 문화로 소비될 때 그것은 이미 사회적 행동⁶⁴⁾으로 수용될 수 있다.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위치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소비하는 문화대중으로 여성들을 호명할 수 있었던 것은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작동시키는 토대, 곧 새로운 세계(구체적으로는 근대 세계)의 고난과 불안정성을 갈등 요소로 선택하고 전근대적 윤리와 도덕을 지닌 선한 사람들을 통제 불가능한 힘과 대면케 하는⁶⁵⁾ 멜로드라마의 토대가 당대 타자성이 중첩된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신소설을 읽고, 그것이 입체화된 (신)연극을 보며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고 소비하는 대중문화의 객체이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며 다가올 대중예술의 시대를 예비한 『제국

와 구경군으로 하야곰 일층 마음을 감동케 하야 모다 슬허하는 동시에 나는 허읍시 울고 동정을 표하얏지 참가히 비극이라 하겠서(『독자구락부』, 『매일신보』, 1913년 8월 1일.)

- 64) 가령 1908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연재되었던 『제국신문』의 별보를 예로 들 수 있다.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해 제국신문사를 찾은 한 부인의 뉘두리를 전하는 이 별보는 최루성 감정의 표현과 그것에 공감하고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기자의 모습을 생생히 전한다. “작일 오후 삼시랑에 었던 부인 일명이 장옷을 버셔 얽헤 끼고 무엇을 보에 쓰고 싸셔 허리에 단단히 띠고 머리터럭은 어즈러운 썩갓고 치마는 갈갈히 찌여지고 적오리 고름은 썩러지고 두 눈에는 **피눈물 흔적**이 몰이지 안이하야 밋친 사름의 모양으로 본사에 들어와 **슌흔** 소리로 무르되「여기가 테국신문사오닛가」하거날 본기자 | 놀나 날어나서 문을 열고 무삼 연고로 테국신문사를 찾나뇨 **흔즉 그 부인이 한숨을 짜이 찌지게 쉬고 하날을 불으지즈며** 하느말이「하도 지원극통흔 일이 잇서서 기명흔 여러 량반의게 호소하랴 왓삽느이다」하느지라 본기자 | 그 곡직을 알고져 하야 청하야 들인 후에 무삼 일인지 전후리력을 소상히 말하랴 **흔디 그 부인이 억식하야 말을 일우지 못하다가 겨오 정신을 슈습흔고 갈아디.....(이 말을 하며 눈물이 비오듯하느 고로 본기자도 실성통곡 하엿소)**”, “**본기자**의 실성통곡함을 보고 **곶헤 안졌던 샤원 오륙인이 모다 눈물을 흘니며 최저하느 사름 칠팔명이 문밖게 모혀 서서 그 광경을 보다가 서로 도라 서서 락투하니.....**”, “.....여러분은 나라와 동포를 위하야 공정흔 물로써 본인의 철던지한을 풀게하여 주시면 디하에 가서 결초보은하오리다 하고 나아가 거날 **본기자 | 울며 전송흔고 그 말을 대강 기록하야 련삼일을 닉엿삼거니와** 추후라도 그 스실을 뜻는 디로 다시 기지하겠노라 “

- 65) 벤 싱어(이위정 옮김), 앞의 책, 200쪽.

신문』은 여성을 위한 ‘암신문’에 한정되지 않는, 일정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여성을 매개로 한 멜로드라마적 요소의 사회문화적 의미

글쓰기의 체계가 변화하는 것은 그것 내부의 영향도 있지만 글쓰기가 위치한 환경체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글쓰기의 행위와 목적은 물론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방식과 지향점의 변화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물질 환경의 변화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통상 멜로드라마 장르 혹은 양식의 발현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상관되어 논의된다. 피터 브룩스의 경우 멜로드라마를 “혁명기의 장르”로 규정하고 “혁명적 도덕주의를 드러내는 장르”⁶⁶⁾로 이해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이념을 설교한 시민 혁명의 전형인 프랑스 혁명이 멜로드라마의 이데올로기적 역학과 부합하며, 멜로드라마는 새로운 사회 원리를 지지하는 극적 플롯⁶⁷⁾과 연동된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제국신문』을 매개로 신문기사, 신소설, (신)연극이 상호교섭하며 형상화한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소비한 여성대중들은 1907년 이후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화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다분히 여성독자와 여성관객을 염두에 둔,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매개로 호화된 신소설과 (신)연극은 사회적 소통매체로 기능할 수 있었고, 그것에 탑재된 멜로드라마적 요소는 “부인사회”가 구체적인 일상의 상세감각으로 분화되고 개연화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상징 코드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상징적 코드란 비(非)개연적인 상황에서도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코드이다. 선택된 상징적 코드를 통해 비로소

66) 피터 브룩스(이봉지·한애경 옮김), 『육체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0, 131쪽.

67) 정현경, 『극양식으로서의 한국 멜로드라마 일고(一考)』, 『문예시학』 23집, 2010, 211쪽.

그에 상응하는 감정들도 형성⁶⁸⁾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국신문』의 신문 기사, 신소설, (신)연극이 상호 참조하는 과정에서는 유독 멜로드라마적 요소라는 상징적 코드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된다. 1910년대 이후 대중문화(대표적으로 신파극)에서도 새로운 상징적 코드가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멜로드라마적 요소라는 상징적 코드를 생생하게 만드는 방법들, 가령 화려한 무대 스펙터클과 같은 것이 고안된다. 새로운 관념을 표현하고자 해도 코드화된 표현 형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기존의 코드를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10년대 번안 신파극의 시대를 거쳐 1930년대까지도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한국연극사의 실제적 실천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일종의 사회적 상징 코드로 이해할 때 그것에 반영된 당대의 의미론을 따져보는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사회적으로 개연화되는 체계의 과정을 규명할 수 있을 때, 멜로드라마의 등장 혹은 탄생을 역사사회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드라마의 하위 장르종으로서 근대적 사회 변화를 구조화한 멜로드라마는 태생적으로 근대 사회극의 속성을 지닌다. 하지만 한 사회나 시대를 표상하거나 규정하는 의미론적 표현들은 변화를 겪는 동안 동일한 외양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용어나 개념을 통해 대상을 고찰하는 경우, 용어나 개념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변화의 동인과 원인에 대한 설명이 사실을 확인하는 결과물로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신파극 연구는 서구의 멜로드라마 개념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용하여 확정할 수 없는 연구 대상인 조선의 신파극에 적용하거나 사회적 개연화의 과정은 생략한 채 그 결과물만을 고찰하거나⁶⁹⁾ 신파극을 고찰하면서 그 연구 대상으로 신파극의 재료로 제공되었

68) 니콜라스 루만(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14-21쪽.

던 신소설을 논하는 우회적 방식⁷⁰⁾을 통해 진행되었다. 멜로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이론(드라마 텍스트로서의 멜로드라마와 멜로드라마 연극으로서 공연이 지니는 차이를 포함)을 확정 불가능한 신과극이라는 공연 연구 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분석이라기보다 사실을 구성하는 해석 행위에 가깝다. 특히 연구 대상 확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서사장르인 신소설과 극장르인 신과극의 차이를 배제하는 신과극 고찰 방식은 그 세부의 미덕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1907년 후반 『제국신문』의 재배치된 지면을 실증 자료로 삼아, 신문연재 신소설이 신과극의 원재료로 활용될 수 있었던 예비적 상황, 즉 그 동인과 원인에 주목했다. 『제국신문』을 매개로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사회문화적 상징적 코드로 기능했던 정황을 통해 지금은 그 대상을 확정할 수 없는 신과극을 추동했던 사회문화적 요소를 탐색하려 한 것이다. 신소설을 곧 신과극으로 단정하는 관행적 도식은 위험하지만, 신문연재 신소설과 신과극이 여성감각에 호소하는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매개로 호환되는 사회적 개연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본 논문은 1910년 변안 신과극 이전 그것을 예비했던 연극사적 상황을 고찰함과 동시에 멜로드라마라는 사회적 상징 코드가 당대 “부인사회”의 분화를 반영했다는 사회적 의미론을 분석해 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당대 다른 매체와 구분되는 『제국신문』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었다. 『제국신문』은 ‘암신문’에 한정되지 않고, 당대 대중문화를 구성한 매체로서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곧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신문기사와 신문연재 신소설, 신연극과 신과극은 상호참조의 관계 속에 1910년대 대중예술의 구심점이자 당대의 대중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69) 이승희,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 『한국극예술연구』 15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

70)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 사상, 2011.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제국신문』

2. 단행본

구연학, 『설중매』, 회동서관, 1908.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 사상, 2011.

아놀드 하우저(염무웅 · 반성완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창작과 비평사, 2004.

벤 싱어(이위정 옮김),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니콜라스 루만(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피터 브룩스(이봉지 · 한애경 옮김), 『육체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0.

로저 스크러튼(김경수 옮김), 『건축미학』, 서광사, 1985.

W.Faulstich(Hg.), *Medien und Kultur*, Go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91.

3. 논문

김기란, 『한국 근대계몽기 신연극 형성 과정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53쪽.

김기란, 『신연극 <은세계>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195~241쪽.

김기란,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여성문학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39쪽.

김복순, 『『제국신문』의 힘: 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학사연구』, 2013,

343~385쪽.

김주영, 『이해조 소설 연구-1910년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5, 1~68쪽.

문일웅, 『만민공동회 시기 협성회의 노선 분화와 『제국신문』의 창간』, 『역사와 현실』 83호, 2012, 249~293쪽.

배정상, 『『帝國新聞』 소재 이해조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양세라, 『근대계몽기 신문 텍스트의 연행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1~186쪽.

윤민주, 『가정비극류 신파극에 나타나는 멜로드라마적 과잉(melodramatic excess)에 대한 연구 -1910년대 초기 변안소설 각색 신파극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55호, 2011, 509~547쪽.

이승희,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 『한국극예술연구』 15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 93~129쪽.

정현경, 『극양식으로서의 한국 멜로드라마 일고(一考)』, 『문예시학』 23집, 2010, 203~230쪽.

Abstract

The Mass Cult Significance of the *Jeguksinmun*(The Newspaper of the Empire) after 1907

- melodramatic featuring of women through the cross reference of the Sinsoseol(early modern novel) and the Singeunguk(new theatre) -

Kim, Kir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Jeguksinmun*(The Newspaper of the Empire) after 1907 that is found and announced recently, in special, reassignment of the paper. The Sinsoseol(early modern novel) and the Singeunguk(new theatre) could be cross-referenced by the newspaper's articles dealing with many classes of the women including individual-lower class. And their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influenced their forming the fictional Subject via the melodramatic factors in paper and Sinsoseol(early modern novel). Furthermore in 1910s when the Sinpaguk(melodramatic theatre) era came, Sinsoseol was used as the script of the Sinpaguk via the melodramatic factors, which was the media functioned as social-culture symbolic code via the *Jeguksinmun*. It was the *Jeguksinmun* that reflected social differentiation of the women, and this is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Jeguksinmun*.

Key words: *Jeguksinmun*(The Newspaper of the Empire), reform of the everyday life, melodramatic factors, women-mass, Sinsoseol(early modern novel), Sinpaguk(melodramatic theatre)

